

# 6~7이닝 괴력 투구 후라도 5년 만의 200이닝 투수 '찜'



프로야구 선발투수  
가 한 시즌 200이닝을  
던졌다는 것은 큰 의미  
를 갖는다.  
한 시즌 144경기를 치르는  
KBO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은 정상적으  
로 둘면 약 30경기를 등판한다. 등판 때마  
다 평균 6~7이닝을 꾸준히 던져야 200이  
닝을 달성할 수 있다.

시즌 내내 부상이나 슬럼프 없이 로테이  
션을 지켜야 한다.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모습이 없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200이닝 투구는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0이닝을 소화하는 투수가 나오  
면, 그 팀은 최소한 5일 간격으로 불펜을  
아낄 수 있다.

불펜 소모가 적으면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  
지는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서 큰 효과  
를 본다. 200이닝 투수의 등판 다음 날  
불펜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서 마운드 운용에도 이점을 누린다.  
200이닝 투수는 분연화가 이뤄진 현대  
프로야구에서 희귀하다.

KBO리그에선 2020년 kt wiz에서 뛰던  
오드리사마 데스파이네(당시 20%이닝)  
이후 단 한 명도 한 시즌 200이닝 고지를  
밟지 못했다.

을 시즌엔 5년 만에 200이닝 투수가 나

지난달 30일 기준 171이닝 넘겨  
5회 더 등판할듯… 신기록 확실시  
최다 투구서 2위 폰세 크게 앞서  
QS·QS+·완투 모두 선두 점령  
삼성 “타자친화 흡서 이룬 혁신”

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닝 이터 아리엘 후라도  
(29)가 200이닝에 도전한다.  
후라도는 지난달 30일 기  
준 26경기에서  
171⅓이닝

을 던져 13승 8패, 평균자  
책점 2.57을 기록 중이다.  
삼성은 정규시즌 20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후라도는 5번 정도 추가 등판할 것  
으로 보인다. 올 시즌 경기 당 평균 6.6이  
닝을 던지는 후라도는 현재 페이스를 유  
지하면 200이닝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후라도는 이닝과 관련한 기록에서 압도적  
인 성적을 내고 있다. 최다 투구 이닝에선 2

위 코디 폰세(157%이닝·한화 이글스)를 크  
게 앞서고,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3  
자책점 이하 투구) 20차례, 퀄리티스타트  
플러스(QS+·선발 7이닝 3자책점 이하 투  
구) 13차례, 완투(3차례) 부문 모두 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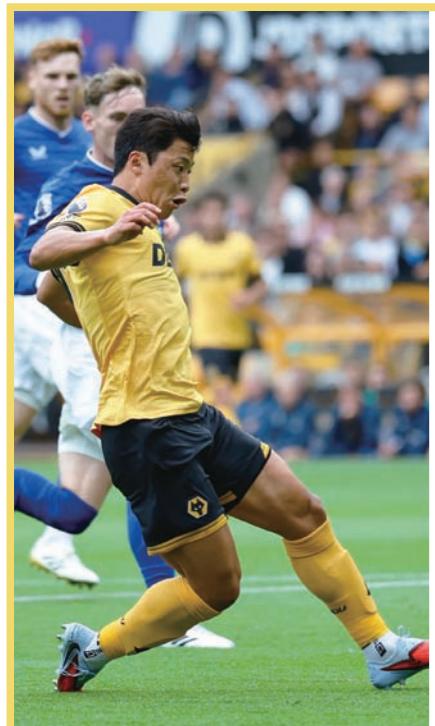
후라도의 활약상은 KBO리그의 대표적  
인 ‘타자친화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흡구장으로 쓰면서 일궈내 더욱  
의미 있다. 후라도는 올 시즌 등판 경기의  
절반 이상인 15경기를 대구에서 소화하면  
서 94이닝을 책임졌다.

삼성 내부에선 후라도의 혁신을  
높게 평가한다. 박진만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후라도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팀은 졌지만… 황희찬 개막 3경기 만에 골맛

‘황소’ 황희찬(29·  
풀버햄프턴·사진)

이 올 시즌 잉글랜  
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3  
경기째 만에 처음 선발로 출전해 마수걸  
이 득점포를 터트리는 기쁨을 맛봤지만,  
팀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풀버햄프턴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영국 풀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  
서 끝난 에버턴과 2025-2026 EPL 3라운  
드 흥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첫 선발 슈팅 기회, 시즌 1호골

### 풀버햄프턴 개막 3연패 수령

이날 패배로 풀버햄프턴은 개막 3연패  
(3패·승점 0·골득실 -6)에 그치며 1경기  
를 덜 치른 웨스트햄(2패·승점 0·골득실  
-7)에 골득실차로 겨우 앞서 20개 팀 가  
운데 19위에 머물렀다.

풀버햄프턴은 1~2라운드에서 교체로

내세웠던 황희찬을 최전방 스트라이커

로 내세운 3-4-3 전술로 에버턴을 상대  
했다.

황희찬은 지난달 27일 리그컵(카라바오  
컵)에선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출전한  
바 있지만, 정규리그에서 선발 출전은 이  
번이 처음이다.

황희찬은 전반 21분 동점골의 주인공이  
됐다. 오른쪽 측면을 뚫은 마셀 무네치가  
크로스를 내주자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재빠르게 쇄도하던 황희찬이 원발 슈팅  
으로 에버턴의 골 그물을 훔들었다.

## “허리 부상 김하성 훈련 재개”… 이르면 오늘 복귀

허리 통증 탓에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김하성(29·탬파베이 레이스사진)이 이르면  
2일(한국시간) 빅리그로 돌아올 전망이다.  
MLB닷컴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구  
단 부상 선수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김하  
성은 팀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경기를  
치른 지난달 26~28일 훈련을 재개했다”며

“케빈 캐시 김  
독은 현역 로스터가 확대되  
는 9월에 김하성이  
복귀할 것이라고 말  
했다”고 전했다. 캐시 김독은 지난달 30일  
탬파베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김하  
성이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 구단이 만  
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2일  
(한국시간)에 현역 로스터를 26명에서 28  
명으로 늘린다. 김하성은 지난달 21일 뉴욕 양키  
스와 흥 경기를 앞두고 허리 근육 경  
련 증세를 호소하고 22일에 IL  
에 올랐다. IL 등재 시점도 2일  
21일로 소  
급 적용  
됐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핸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린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린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